

중국 오리산업 현장을 가다.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1. 중국의 경제현황

중국은 현재 성장률 9.8%대를 기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국가로서 동부와 남부지역에 부촌이 밀집돼 있고, 연간 1억위엔(170억원)이상의 고소득층이 2천만명 이상이라는 소문이다.

이러한 고소득층은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를 버리고 자본주의를 택하기 이전부터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과 자본주의화 이후 새로운 사업 개척으로 신흥 갑부가 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은 부유층이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그 외 계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매우 빈약하여 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

정치면에서는 아직까지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경제는 완전 자본주의화 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화 이후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사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의 경우 안전성 문제로 자국의 농수축산물을 무조건 기피하지는 않으나 대신 자국내에서 유기농으로 재배, 사육한 고품질 제품을 주로 구입한다. 따라서 안전, 안심 오리고기 생산으로 중국 부유층 시장을 겨냥한 전략이 필요하다.

중국의 농업은 산업화 수준이 낮고 수출경쟁력도 미흡하다. 농업생산의 규모가 작고 기술수준이 낮으며 지역별 불균형적으로 발전 되어 있다. 매출액 1억 위안 이상인 농수산물 생산업체가 4천개여개에 불과하고 농업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낮다.

중국의 가공설비, 기술, 생산관리 수준이 낮아 생산원가도 높다. 최근 들어 원료가격, 인건비, 에너지, 운송비용 등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농식품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2. 중국의 오리산업 현황

중국의 상시 오리 사육마리수는 2009년에 769,4백만수, 오리고기 생산량은 2,644천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에 611.9백만수, 1,868천톤이던 것이 각각 25.7%, 41.5%가 증가한 것이다.

한편, 같은 해 육계 상시 사육 마리수는 4,703백만수, 닭고기 생산량은 11,443천톤으로 사육마리수로는 오리의 6.1배, 고기생산으로는 오리의 4.3배에 이른다.

중국의 오리 주산지는 양자강 하류지역으로 화동, 동남, 연해성, 하북성, 등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밖에 중국의 대만성에도 오리사육이 많다.

중국의 연간 오리 도매수수는 약 20억마리로 이로부터

〈 표 1 〉 중국의 오리 및 닭 생산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오리사육마리수(백만수)	611.9	635.9	686.4	660.0	710.4	730.0	742.0	752.1	761.3	769.4
오리고기생산량(천톤)	1,868	1,913	1,850	1,917	1,950	2,150	2,175	2,328	2,509	2,644
육계사육마리수(백만수)	3,619	3,769	4,100	3,975	4,210	4,442	4,456	4,505	4,602	4,703
닭고기 생산량(천톤)	9,064	8,851	9,173	9,448	9,484	9,483	9,965	10,616	11,016	11,443

270만톤의 오리고기가 생산되어 도입된 오리의 평균 체중은 대략 1.4kg 정도 일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는 2001년 현재 964개의 종오리 GP농장이 있는데 사천성에 171개, 광둥성에 112개, 안휘성에 103개, 광서자치주에 90개 등 이 5개 성에 종오리 GP농장이 전국의 73.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원종장(GGP)은 허베이성 상페에 있는 체리베리종 GGP원종장과 칭타오 프랑스 그리무드사 GGP 농장이 있다.

중국의 실용오리(OO)의 1/3은 체리베리종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 2/3는 중국 고유 품종이 점하고 있다. 그렇다고 체리베리종이나 재래종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차이는 없다.

육용종 체리베리종은 사료효율이 높아 생산성이 좋지만 북경요리 로스트로는 적합하지 않다. 카키캄벨종도 한때 도입되었으나 지금은 없다.

실용오리는 번(番)오리(파이어), 머스코비(남미산)를 프랑스에서 도입, 잡종(F1)으로 한 상품오리를 생산하기도 하나 수량은 많지 않다.

2007년 중국 오리농가의 생산성을 보면 육용오리 출하 일령 51일, 출하체중 4.20kg, 사료요구율 3.62kg, 폐사율 9%, 종오리 산란율 90.8%, 부화율 84.4%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중국 오리 수당 생산비를 보면, 16.66위엔(2,166원)으로 그중에서 수도광열비가 3.57위엔으로 가장 많이 들고, 다음이 운송비(3.28위엔), 사료비(2.05위엔), 오리새끼(1.92위엔)값 순으로 많다.

중국 오리 kg당 수익성을 보면, 같은 해 조수익이 6.93위엔, 생산비가 4.20위엔, 이윤이 2.73위엔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육용오리 계열화 업체는 2007년 6월 현재 71개 정도이며, 참여농가는 3,177천호, 사육수수는 276,787천수(호당 87수)로 전체 육용오리 사육수수의 81.0%를 차지하고 있다.

육용오리 계열농가와 일반 농가의 생산성을 비교한 바, 계열농가의 성적이 월등히 높다. 즉 평균출하 체중은 4.94kg 대 4.51kg, 사육일수는 50.6일 대 60.7일, 육성율은 91.1% 대 89.6%, 사료요구율은 2.70kg 대 3.11kg로 전체 생산지표 중에서 계열화 참여 농가가 모두 앞섰다.

중국에서도 계열농가와 계열업체간의 갈등은 상존하고 있다. 주된 원인은 역시 이익배분의 모순에서 촉발된 것들이다.

중국의 오리고기 가격은 중간 정도 수준이며 육계보다

약간 비싼 편이다. 2006년에 오리새끼 가격은 2.11위엔, 산지 가격은 2.09위엔, 통오리 도매가격은 6.05위엔이었다.

2007년 9월 15일 중국 광둥지방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중국에서 생오리고기 등은 한국과 일본에 수출 금지되고 있다.

중국의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7년에 263.5만톤으로 중국 국민 1인당 2.03kg에 달했다. 중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오리고기 부위는 목, 발, 머리, 날개이고 오리 요리 중 선호되는 것은 오리구이, 저린오리 형태이다.

2007년 중국의 오리고기 총공급량은 316.7만톤으로 이 중 국내생산은 224.5만톤, 전년 이월량 50.2만톤, 수입량 710톤이었다.

3. 중국의 오리고기 수출

2007년 중국 오리고기 수출량은 3만톤에 달했는데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훈제 가공품을 위주로 수출하고 있다.

중국의 오리고기 수출기반은 값싼 옥수수 등 사료의 확보와 값싼 노동력을 보유하는 등 우위가 있어왔으나, 최근 위 두 가지 요소 가격이 모두 상승하고 있고, 물류 수송기반이 열악하여 중국의 오리고기 수출은 앞으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특히,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역화개념”에 대하여 아직 이해되는 부분이 적어 중국 오리고기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금류(오리포함) 수출세금 반환율을 종전 5%에서 13%로 2004년부터 올렸으므로 수출 촉매제가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의 오리고기 제품의 수출시장은 일본, 한국, 홍콩, 마카오로써 2007년 이지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84%에 달했고, 특히, 홍콩의 비중은 67%, 다음은 한국, 마카오, 일본 순이다.

4. 중국 오리 생산업체 방문기

중국에서 오리산업이 수량면에서는 산둥성, 하남성, 화음성, 내몽고성의 순이다. 흑룡강성은 인구가 많고 땅이 비옥하며, 저수지, 하천부지가 많아 논농사와 접목시켜 경영비를 절감하는 오리사육이 성행하고 있다.

○ 黑龍江省 北大荒牧業 有限 公社

(흑룡강성 북대황목업 유한 공사)

필자 등이 2011년 7월 방문한 흑룡강성 北大荒牧業 有限公社는 부화후 20일령이 지난 새끼 오리를 벼논에 방사하여 벼논의 잡초, 병충해 등을 일부 먹이로 하고 인공배합사료를 급여한 “오리농법”을 시행하고 있었다.

새끼오리는 별도의 관리시설에서 5,000수 당 2명¹⁾의 비율로 관리인을 두고 철저한 관리를 함으로써 건강한 병아리를 벼논으로 내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러한 오리농법에 의하여 재배된 쌀은 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환경친화적 쌀(綠色食品)로 인정받아 일반 쌀 가

1)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지배구조가 공사형태인지 몰라도 인력에 관한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듯 함.
2) 미확인 자료이나 중국에는 연봉 1억위엔(180억원)의 고소득층이 2000만명에 달한다는 것임.

격의 10배에도 중국 내부 부유층²⁾으로부터 수요가 충분
이 있다는 것이다.

오리농법으로 사육된 오리는 동물약품을 전혀 사용할 필
요가 없어 자연스럽게 무항생제 축산이 가능해짐으로서
쫄깃쫄깃한 맛을 좋아하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다.
중국 사람들은 너무 연한 것은 연화제 등 약품을 썼을 것
이라는 의심 때문에 연한 고기를 기피하는 편이다.

20일령 새끼오리는 수당 1.5위엔(255원)정도에 구입하여
180일정도 비논에서 키우면 출하시 체중이 1.8kg 정도가
되고 이때 가격은 근당 5-6위엔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수당 18-21.6위엔).

오리농법 영농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논이 10,000수당 40
무(畝=666m²)(약 26,640무≒8000평)이 필요하고 주변에
호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비논에서의 사육이 끝난
후 출하할 때 까지 오리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리농업의 오리생산비 중 인공배합사료비는 수당 7-8
위엔(kg당 3.9-4.4위엔)이 들어 오리사육 현금 지출비용
(새끼오리 1.5위엔+배합사료비 7.5위엔, 도합 9위엔)이
소요된다. 따라서 오리수당 9-13.6위엔(1,530원-2,312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 1만수를 사육할 경우 9-13.6



만위엔(1,530-2,312만원)의 오리사육 소득이 가능한 것
으로 계산된다. 이는 부산물에만 해당되는 소득이므로 쌀
생산소득까지 합하면 엄청난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황금알을 낳을 것 같은 오리농법은 한국에서는 조
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오리농법이 중
단 위기에 처했다. 오리농법을 중단하는 대신 쌀겨(미강)
나 우렁이 등 다른 친환경농법으로 대체되고 있다.

○ 北京 公平鳥類加工工場 見聞記

(북경 공평조류가공공장)

北京 公平鳥類加工工場은 농가에 위탁하여 사육된 오리
를 강제급이하여 체중을 높여 북경지역 오리요리점으로
출하하는 업체이다.

부화장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받아 개별 농장에 약 40일

회사의 일반현황

- 회사 설립연도 : 2007년
- 투자금액 : 1,500만위엔~2,000만위엔 : 초기 투
자비용보다 유동자금이 많이 필요한 편임.
- 오리종자 : 북경 사계종 (북경 순종); 따로 오리종
자 수입은 수행하지 않음.
- 위탁농가 : 100호
- 종업원수 : 80~90명
- 종오리 1일령 수당 13위엔, 육용오리는 수당 3.5위엔
- 1차 사육 후(약 40일) 오리 수당 구입비용 : 5위엔
- 최종 납품가 : 40~50위엔 (사료가격 따라 편차)
- 수당 생산단가 : 약 37위엔 수당 순이익은 적은 편.
- 시간당 도압수수 : 500수
- 강제급이기간 중 수당 사료 소모량 : 2.0~2.5kg
- 1일령~출하시까지 전체사료소모량 : 9~10kg

정도 위탁 사육하였다가 도입전 7~10일간 사료를 강제 급이하여 북경오리만을 전문적으로 사육·도입·가공·유통하는 업체이다.

대표자는 원래 사료회사를 경영하다가 사료업계의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지자 오리업으로 업종 전환한 사례이다.

위탁사육농가로부터 공장으로 출하시 출하율은 약 95% 이상되고 있으며 그 이하로 출하된다고 해서 페널티 조항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위탁농장과는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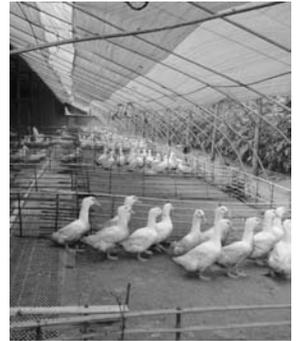
사육과정의 폐사를 고려하여 위탁 사육시 100수당 3수 비율로 "덤"을 제공하여 계획량이 전수 공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오리 사육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위탁농장에는 새끼 오리 외에는 깔짚, 사료 방역약품 등은 따로 공급하지 않는 대신 사료, 방역약품 등의 경우 정부에서 지원한다.

오리는 따로 항생제나 약품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정부 방침상 AI 백신은 투여하고 있으며, 백신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다.



강제급이는 7~10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하루 4번 실시한다. 급이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천수 정도만 처리 가능하며 그 이상은 어렵다.



북경시 근교에서 가장 많은 북경오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하루 1만수정도 공급가능하다.

7~10일간 강제급이를 실시하는 이유는 단기간 내 원하는 중량까지 비육하기 위한 것으로 강제급이 방식은 프랑스의 푸와그라 생산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0년에 120~130만수 정도 가공했으며 올해에는 150~160만수 정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 도입·가공 및 유통

공장이 모두 간이식 건물인바, 이는 업체와 정부가 공장 토지에 대하여 30년간 임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영구식 건물 신축은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입시 라인을 통해 도입공정이 이루어지며 시간당 500수의 오리를 도입하고 있다. 북경오리는 껍질의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리 도입 가공 공정에 비해 보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밤 10시 이후 전기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공정은 모두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정도까지 이루어진다.

북경오리용 오리는 도압 후 내장적출을 모두 오리의 입을 통해 하고 있는데 이는 북경오리의 가장 중요한 피부(껍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내장 적출 후 오리의 항문부에 수수깡을 삽입, 공기를 주입하여 껍질과 살코기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위생검사는 정부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업체의 도압 자격증을 농업관리국에서 발급한다. 최근 모든 식품관리법이 엄격해지면서 많은 업체가 자격을 박탈당하여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공무원인 수의사가 매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수의사는 3~5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이 수의사는 제품 샘플을 수거하여 검사기관으로 보내고 있다.

5. 중국 대형마트 오리고기 제품 유통 현황

방문처는 북경 까르푸매장이다. 대부분 열처리 가공육을 판매하고 있으며 통오리 훈제와 부분육(가슴살)이 주를 이루고 있다.

